

임진왜란기 남병(南兵) 무예 도입에 관한 고찰*

노동호**(남부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임진왜란기 남병 무예가 도입된 배경과 과정 등을 분석하여 도입된 무예의 특징과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남병무예의 도입은 낙상지가 처음 류성룡에게 무예훈련을 제안하여 도성에서 시작되어, 점차 지방군으로 확산되었다. 초기에는 조선군이 명군 진영에서 무예를 훈련하였고, 후에는 훈련도감에서 직접 무예교사를 양성하고 지방군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무예를 전파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민간의 어린아이에게까지 무예가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양상이었다. 2단계는 강화협상기에 잔류한 낙상지 진영의 교사와 1차 파견 교사 12인, 2차 파견 교사 100인에 의해 무예훈련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무예교사의 자질이 부족하고 군기가 문란하여 1년여 만에 철수되었다. 다양한 무예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였다. 정유재란이 발발한 3, 4단계 시기의 무예훈련은 훈련도감이 오유충과 허국위 군영의 협조로 추진되었다. 처음 도입 후 4년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 시기이다. 4단계는 훈련도감에서 12인의 교사대를 결성하고 허국위 진영에서 훈련한 마지막 단계이다. 또한 한교가 문답을 통해 허국위의 자문을 받고 그 동안의 성과를 총망라하여 『무예제보』를 편찬했다. 날개 기술인 세(勢)를 다시 연결하여 만든 투로무예를 주요 훈련방식으로 도입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후대의 무예서 편찬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임진왜란, 남병, 훈련도감, 무예

* 이 논문은 2023년 남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hao@nambu.ac.kr

I. 서 론

1592년 4월 14일 부산포로 침략한 일본군은 5월 2일 17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여 싸우지 못하고 선조가 의주로 피신을 가는 지경에 이르러 명에 구원군을 요청했다. 처음 파병된 기병위주의 북군이 최초 평양성전투에서 패하자, 다시 기병 북군과 보병부대인 남병¹⁾으로 구성된 명군이 파병되고 2차 평양성전투에서 대승하여 평양성을 수복한다. 이를 계기로 조선 조정은 화기와 각종 무예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남병의 전투력에 주목하게 된다.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 조정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조선군을 훈련시켜 조선이 자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전략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또한 조선 조정도 군비강화를 위해 명군의 무예훈련법을 포함한 군사기술을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고 남병의 살수무예를 중심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당시 조선군은 궁시를 제외한 병기를 다루는 무예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이런 이유로 조선 조정은 전쟁 초기부터 명군이 전원 철수하기 직전까지 명군의 무예를 도입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종전 직전에 무예훈련교범인 『무예제보(武藝諸譜)』가 편찬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남병무예는 이후 조선군 훈련의 주요 수단이 된다. 또한 무과시취과목에 반영되거나 민간에 놀이로 보급되는 등 전후 조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남병 무예의 도입과정은 조선 후기 무예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임진왜란기 남병의 무예가 도입된 배경과 과정 등을 분석하여 도입된 무예의 특징과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조실록』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기간 명군과 조선군의 무예훈련과 연관된 내용을 발췌하였다. 자료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무예훈련이 어떻게 전개되었

1) 남병은 출신지역에 따라 절강병, 복건병, 사천병이 있었고, 조선군의 무예훈련은 주로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근거로 한 절강병의 것을 따랐다.

는지를 분석하였다. 도입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남병 참장 낙상지(駱尙志) 군영훈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단계는 명일 강화협상기로 명(明)이 파견한 무예교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는 정유재란기 남병 부총병 오유충(吳惟忠) 군영훈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단계는 정유재란기 복건병(福建兵) 유격 허국위(許國威) 군영훈련과 한교(韓嶠)의 『무예제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조선의 『무예제보』와 중국의 『기효신서』 등에 수록된 무예의 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남병 무예와 조선이 수용한 무예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연관된 주제의 선행연구로는 정해은(2004)의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단병기와 무예제보의 간행, 국외는 중국 楊海英, 任幸芳(양하이잉, 런싱팡, 2011)의 ‘朝鮮王朝軍隊의中國訓練師(조선왕조군대의 중국훈련사)’, 蔡藝(차이이, 2020)의 ‘萬曆援朝戰爭與浙兵武藝在朝鮮半島的傳播(만력원조전쟁과 절병무예의 조선반도에서의 전파)’ 등이 있다.

II. 전쟁 시기에 따른 무예 도입 과정

1. 1단계: 임진왜란 발발에서 명군의 1차 철수까지

임진왜란 발발 초기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石星)은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자 율타리이기 때문에 문무대신을 파견하여 일본군을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도 진주사 정곤수가 명에 자문을 제출하여 조선이 중국의 율타리이니 중국 강역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파병해달라고 요청했다.²⁾ 명 조정은 조선의 자위력이 거의 붕괴된 상황에서 일본군이 중국 내지로 침략할 것을 우려하여 파병을 결정하였

2) 扈兵部尙書石星文. 김영진(2021). 임진왜란 2년 전쟁 12년 논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

다.

1592년 7월 조승훈이 이끄는 북병 위주의 1차 파병군을 보내지만 평양성 전투에서 대패하였다. 이에 다시 왜구와의 전투경험이 풍부한 남병이 포함된 2차 파병군을 파견하였고, 조명연합군은 평양성 전투에서 대승하여 평양성 탈환에 성공한다. 2차 파병군 전체 4만 6천 5백 명 중 북병은 3만 5천 5백 명, 남병은 1만 1천 명이었다. 남병의 보병은 낙상지(駱尙志), 오유충(吳惟忠), 왕필적(王必迪), 척금(戚金) 네 명의 장수 휘하 8천 5백 명이었다.³⁾ 2차 평양성 전투 대승 이후 조선 조정은 강한 전투력과 엄한 군율을 갖춘 남병에 깊은 신뢰감과 기대를 보였다.

일본군이 서울에서 남해로 남하하고 명과 일본의 강화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명 파병군의 주둔과 철수 문제가 두 나라 조정의 주요 의제가 된다. 조선에서의 명군의 주둔과 전투에는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소요됐기 때문에 명 조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방안의 하나로 조선군의 훈련을 도와 조선이 자력으로 일본을 방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조선군의 무예훈련을 적극 돕는다. 조선군이 어떻게 명군의 무예를 익히고 훈련하였는지는 선조실록과 문집에 그 과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시작은 낙상지의 제안이었다.

“왜적이 이미 조공을 요청하고 (명이) 그들의 퇴각을 허락했으니 (조선은) 10여 년은 확실히 무사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군사를 훈련하고 장수를 뽑아 대책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⁴⁾

이 시기 류성룡과 낙상지의 교류 내용을 살펴보면 무예 훈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1593년 4월 류성룡이 병환으로 요양할 때 낙상지가 문병하며 무예훈련에 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이어서 1593년 5월 낙상지는 류성룡에게 편지로 조선군 무예훈련에 관해 제안한다.

“저는 지금 바로 와신상담하여 보복하고자 합니다...대원수를 세워 총괄하게

3) 선조실록 26년1월 11일 병인 16번째 기사

4) 「平安道都巡察使時狀啟」(1593, 4, 3), 『梧里續集』권2.

하고 대장을 정하여 무예를 교습하고 무기를 보수하고 정비합니다. 한 명이 열을 가르치고, 열 명이 백을 가르치고, 천 명이 만을 가르치면 반드시 강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비록 왜놈이 다시 온다 하여도 우리가 강한 군사가 있어 대비할 수 있으니...어떻습니까?”⁵⁾

여기에 류성룡은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낙상지에게 답장을 보낸다.

“최근 성안에서 나이 어리고 영리한 사람 수 십 명을 모집했으니 어르신의 군영에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남병 한 명이 한 명을 각각 전담 지도하여...선 발한 40여 명 중 십여 명은 포수, 나머지는 창, 검, 낭선, 진법을 되는데로 배워 익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합니다.”⁶⁾

또한 류성룡은 낙상지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 6월에 무예훈련계획을 선조에게 보고하였다.

“남병이 돌아가기 전에 서둘러 배워야 합니다. 화포, 낭선, 장창, 용검, 조총, 기계 일일이 전습해야 합니다. 하나가 열을 가르치고...”⁷⁾

이어서 선조는 승정원에 낙참장이 아니면 군사훈련과 무기 학습을 할 수 없게 될까 염려했다.⁸⁾ 무예훈련에 관해서는 낙상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이어 8월에는 평균 경력 송응창이 선조에게 조선군 무예훈련에 관해 더욱 구체적으로 자문한다.

“누차 전라, 경상, 경기 등의 도에서 배신들로 하여금 힘이 세고 건장한 군사를 모병하십시오. 많을수록 좋으며 배신들이 관할하도록 하여 부장 유정, 오유충, 낙상지 등의 군영에 보내십시오. 옷과 갑옷을 남병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무기도 남병과 동일하게 하여, 각 영의 교사들로 하여금 기복(起伏) 격자(擊刺)의 기법을 남병과 동일하게 훈련시키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남병과 같아질 겁니다.”⁹⁾

5) 『고문서집성』, 「唐將書帖」. 제52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579.

6) 류성룡. 『서애집』, 권9. 與駱參將尙志書, 193.

7) 류성룡. 『서애집』, 권6. 再乞練兵且仿浙江器械多造火砲諸具以備後用狀, 125.

8) 선조실록 26년 6월 7일 경인 6번째 기사

9) (明)宋應昌, 『經略復國要編』, 「檄朝鮮國王咨」(1593, 8, 4).

송응창의 자문에 이어 선조는 훈련도감의 설치와 무예훈련을 명한다.

“나는 따로 훈련도감을 설치하고자 한다... 장정을 선발하여, 날마다 활 쏘기, 포 쏘기, 모든 무예를 훈련시키도록 하고 싶으니 의논하여 처리하라.”¹⁰⁾

9월에 선조는 동지사 허진에게 왕세정이 서문을 쓴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구입해 오고¹¹⁾ 10월에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기효신서』에 따라 훈련할 것을 명한다. 훈련도감 초기 군사의 선발과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류성룡과 이덕형의 문집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계사년 10월 환도하여...훈련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를 훈련하라는 명을 받았다. 큰 돌을 들게 하여 힘을 시험하고 한 장(丈) 높이의 토담을 넘어가는 것을 시험하여 가능한 자는 받고 불가한 자는 거절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굶주려 기력이 없어 합격한 자는 열에 한 둘 이었고, 얼마가지 앓아 수 천 명이 되어 조총과 창, 칼의 기술을 가르쳤다.”¹²⁾

“환도한 후 훈련도감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공은 유격 척금에게서 척태사 계광의 기효신서를 구하였다. ... 이 책에 따라 교련할 것을 청하니 주상이 허락하였다. 서애공이 제조가 되고 조경(趙敬)이 대장이 되었다...모병하고 조련하며 진을 설치하고 무기를 만드는 것 모두 절강병법을 모방하였다...삼수의 기예를 몇 개 월 훈련하니 군의 모습을 갖추었다.”¹³⁾

낙상지 군영에서 훈련도감 군사가 무예 훈련한 것 외에도 송시량(송응창)이 보낸 남병교사 김문성(金文盛) 등 7명이 유정(劉綎)총병의 군영에서 우리나라 군사를 훈련시키었다.¹⁴⁾ 여기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송응창이 교사를 파견한 시점이다. 실록에는 1593년 10월에 기사가 있지만 1592년 12월 6일에 파견

10) 선조실록 26년 8월 19일 경자 5번째 기사

11) 선조실록 26년 9월 25일 병자 5번째 기사

12) 선조수정실록 27년 2월 1일 경술 3번째 기사. 류성룡, 『서애집』 권16. 민족문화추진회, 1990, 325.

13) 이덕형, 『漢陰文稿』.

14) 선조실록 26년 10월 6일 병술 11번째 기사

기록이 확인된다.¹⁵⁾ 이는 명군의 총지휘자였던 송응창이 2차 명군의 파병과 동시에 조선군의 무예훈련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절강병 무예교사를 사천병 위주의 유정 군영에 보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유정 군영의 조선군도 척계광 계열의 무예를 훈련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송응창과 낙상지는 절강성 동향 출신으로 파병 초기부터 조선군의 훈련에 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명과 일본의 강화협상으로 명군의 철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조선 조정은 무예가 뛰어난 교사를 요청하는 등 무예훈련에 적극 나섰다. 명군이 모두 돌아가기 전에 서둘러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병조판서 이덕형(李德馨)은 낙상지 수하에서 각종 화포와 검창의 기예가 깊은 자 3-4인을 물색했다. ‘각 종 무예가 절묘하여 최상’인 중군(中軍) 가대재(賈大才)와 척계광 진영에 종사했고 화포 제조술에 뛰어난 천총(千總) 문유(聞愈) 등을 서울에 남도록 하여 훈련을 돕게 하였다. 선조는 낙상지에게 자문하여 그의 부하 중에서 무예교사를 삼고, 도창검술을 서둘러 배우라고 명을 내렸다.¹⁶⁾ 이후 문유는 서울에 잔류하여 무예를 지도한 것이 확실하지만 가대재는 조선에 다시 돌아와 무예를 지도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중앙에서 훈련도감의 무예훈련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지방 각도의 무예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당시 훈련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으나 점차 성과가 있음이 비변사의 보고에 나타난다.

“오늘날 급무는 군사를 훈련시켜 적을 막는 일뿐이니, 군사훈련에만 전력을 다해야합니다... 최근 여러 道의 상황을 들으니 생각에 미치지지는 못합니다. 다만 평안감사 이원익이 군영에서 초출하여 포 쏘는 것과 검을 훈련하여 잘하는 자는 상을 주니, 점차 무예가 완성되어 간다고 합니다.”¹⁷⁾ 각도에 교사를 파견하여

15) (明)宋應昌. 『經略復國要編』.

16) 선조실록 27년 1월 8일 정해 1번째 기사, 1월 9일 무자 1번째 기사.

17) 선조실록 27년 1월 30일 기유 2번째 기사.

삼수기법을 훈련시키고 보조군(哨軍)을 배치하였다.¹⁸⁾ 낙상지 군영의 협조로 중앙에서 조선인 무예교사를 배출하였고, 지방에 이들을 파견하여 훈련하는 방법으로 전군에 빠르게 무예가 보급되었다.

군에서의 무예훈련이 확산되는 추세에 이어 민간에서도 무예가 빠르게 전파되었다.

“요즈음 달 밝은 밤이면 집집마다 포(炮)와 칼과 창 쓰는 법을 익히고 있고, 어린 아이도 모두 따라 배웁니다.”¹⁹⁾ “듣자니 향간에 어린 아이들이 검술을 많이 익힌다고 하니 오부(五部)가 뽑아 올리고 훈련도감이 시제하여 입계하여 논상하게 하라.”²⁰⁾

훈련도감에서 무예를 시제하여 상을 주고 발탁한 사실로 보아, 생계와 출세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예가 어린아이에게 까지 급속하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명 조정은 군량 등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명군의 철군과 동시에 조선으로 하여금 서둘러 자력으로 수비하라는 황제의 명을 전달했다. 조선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니 조속히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²¹⁾

이 시기 중앙에서는 훈련도감이 포수 456명, 살수 334명 등 총 790명을 훈련하여 양성하였다.²²⁾ 지방에서는 비변사가 남병교사 호여화(胡汝和) 등의 건의를 받아 각 도에 무예가 숙련된 자를 기총(旗摠)과 대총(隊摠)으로 삼아 파견하여 신병을 훈련시켰다.²³⁾ 명군의 철군이 가시화 되면서 서울과 지방의 군영에서 무예훈련이 빠르게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조는 중국인의 쌍검 시연을 의주에서 보고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며 훈

18) 선조수정실록 27년 12월 1일 갑진 1번째 기사.

19) 선조실록 27년 4월 17일 을축 2번째 기사.

20) 선조실록 27년 7월 11일 정해 1번째 기사.

21) 선조실록 27년 4월 23일 신미 3번째 기사.

22) 선조실록 27년 6월 27일 갑술 3번째 기사.

23) 선조실록 27년 8월 3일 무신 3번째 기사.

련도감에서 배우도록 전교하는 등 무예훈련에 관심이 많고 매우 적극적이었다.²⁴⁾

명군의 철군이 임박하여 류성룡은 낙상지 진영에 70명을 파견하여 무예를 배우게 하는 등 남병의 무예를 흡수하고자 노력한다. 낙상지는 직접 무예를 지도하는 등 조선의 요청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인물로 훈련도감의 무예 도입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조는 낙상지를 조선을 한 집안으로 여기고 정성을 다하는 인물로 평가하며, 오로지 그를 믿고 병기와 무예를 익히고자 한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하였다.

“낙상지공의 진영에 보내어 남방기에인 조총, 낭선, 장창, 검 등을 배웠다. 낙공은 진영에서 교관 열 명을 뽑아 나누어 가르쳤다. 공은 때로 직접 병졸들에게 검과 창을 매우 부지런하게 가르쳤다... 이는 우리나라 (군사)훈련의 시작이다. 얼마 후 낙공이 중원으로 돌아가게 되어 내가 교사 몇 사람을 남기길 청하니... 문유와 노씨를 남기고 갔다.”²⁵⁾

문유(聞愈)는 천총으로 화포전문가이고 노천상(魯天祥)은 교련으로 진법 전문가이다. 척계광이 배출한 남병부대의 모든 장졸은 병과를 불문하고 모두 무예를 필수로 익혔기 때문에 이들이 잔류하며 무예훈련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은 불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3월에 서울에서 연이어 사망했다. “중국 장수와 교사가 연이어 사망하여 군중의 마음이 붕괴되었습니다.”²⁶⁾는 실록의 기사는 이들이 조선군의 훈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문유의 부하였던 파총 왕대귀와 호여화가 뒤를 이어 조선군 훈련을 담당한다. 문유 사후 사기진작을 위해 이들로 하여금 무예를 試才하고 포상하도록 하였다.²⁷⁾ 이 들 외에도 호여화의 동향친구인 장육삼(張六三)이란 인물이 무예교사

24) 선조실록 27년 9월 3일 무인 4번째 기사.

25) 류성룡, 『서애집』 권9, 한국문집총간, 제 52책, 193.

26) 선조실록 27년 3월 5일 계미 2번째 기사

27) 위의 책.

로 선조 27년 4월에서 6월까지 활동한 사실이 있으나 인품과 실력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나쁜 것으로 보아 호여화와의 친분을 이용해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군의 무예 훈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1단계 시기 무예도입과정을 종합하면, 명 조정은 강화협상 초기부터 파병에 따른 군비부담을 이유로 조선의 자위력으로 일본군을 방어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조선 조정도 군사력 재건이 급박한 상황에서 적극 호응했다. 이에 따라 일본군과의 전투에 최적화된 남병 무예를 중심으로 조선군을 훈련시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남병 참장 낙상지가 처음으로 류성룡에게 무예훈련을 제안하여 도성에서 시작되었으며, 후에 경략 송응창이 선조에게 자문하여 지방군까지 확산되었다. 초기에는 조선군이 낙상지, 오유충, 유정 등의 명군 진영에 들어가 무예를 훈련하였으나, 후에 훈련도감에서 무예교사를 양성하고 지방군에 파견하여 무예 훈련을 담당하게 했다. 또한 조선 조정의 정책에 따라 군뿐만 아니라 민간의 어린 아이까지 무예가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양상이었다.

2. 2단계: 명일 강화협상기, 명의 무예교사 파견

강화협상의 진전에 따라 명군이 전면 철수하면서 잔류시킨 교사들이 무예훈련을 담당하였다. 특히 낙상지 진영 출신으로 문유의 수하인 호여화, 왕대귀와 뒤에 온 이이(李二), 장삼육 등이 장기 체류한 인물들이다.

이 시기 명 조정에서는 2차례 훈련교사를 파견했다. 1차는 선조의 요청으로 28년 2월에 경략(經略) 손광(孫鑛)이 진양기(陳良璣) 등 12명의 千, 파총(把總) 등을 파견한 것이다. 선조는 이들을 2-3명씩 나누어, 2월 26일 1차 접견을 시작으로 3월 6일까지 4차례 접견을 하였다. 그 사이 3월 2일에는 낙상지 군영에서 잔류한 호여화, 왕대귀 등도 접견하였다. 그 만큼 선조가 이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기대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교사들 중에 무예가 특별히 절묘한 사람은 별로 없고 모두 왕대귀(王大貴)와 비등하거나 혹은 그만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이들 중 진백기, 섭대조, 양귀의 무예가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양귀는 쌍도와 언월도를 잘하고, 창과 낭선 등 여러 기량에서는 진백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섭대조(葉大潮)는 무예가 뛰어나고 전에 척계광의 군영에서 종사하여 견문이 넓으니, 먼저 전라도에서 훈련하고 경상도로 가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²⁸⁾

“경락에게 교사를 청할 계획을 내가 처음한 것은 중국 창검술의 묘법을 전부 전수 받기를 원해서다... 교사 12사람 중 검과 창 등의 여러 무예에 정통한 두 세 사람을 서울에 남길 필요가 있다. 훈련도감의 군이 밤낮으로 배워서 백원술(白猿術)을 전수받게 하라.”²⁹⁾

무예가 가장 뛰어난 파총 양귀(楊貴)와 진백기(陳伯奇)를 서울에 머물게 하여 각 초의 군병을 교육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중앙을 중심으로 무예가 도입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서울의 군사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왕과 궁의 호위에 필요한 군사의 무예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기 훈련도감의 군사는 주로 궁과 왕의 호위를 담당하였다. 선조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내란을 우려하며 신변의 안전을 매우 걱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선조가 궁과 자신의 호위에 필요한 무예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명 군영의 가정 즉 하인들의 무예 수준도 파악하여 기예가 뛰어난 자가 있으면 배우도록 지시할 정도였다. 절강병의 창법 외에도 평양에 주둔하는 명군의 진정(眞定) 창법을 배울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³⁰⁾ 무예훈련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세세하게 지시하였던 것이다.

또한 교사를 각도에 파견하는 일에 대한 의논이 분분하였는데, 교사들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성심으로 접대를 해야만 착실히 일을 보겠다는 사람이라면 가고 오며 폐나 끼칠 뿐일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교사들이 과도한 접대나 대우

28) 선조실록 28년 3월 23일 병신 3번째 기사.

29) 선조실록 28년 3월 20일 계사 2번째 기사.

30) 선조실록 28년 7월 18일 기축 5번째 기사.

를 원하기만 하고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 폐단은 『기효신서』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어서 선조 28년 7월에 삼수군(三手軍) 훈련의 목적으로 교련 유격 호대수(胡大受)가 교사일행을 이끌고 조선에 왔다.³¹⁾ 하지만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하여 훈련효과도 미비하였고 군기가 문란하여 백성들의 피해가 심각하였다. 도착 후 불과 반 년 만에 선조가 철수를 명할 정도로 훈련교사로 인한 폐해가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초 교사를 청하여, 손군문(손광)이 진양기 등 16명을 먼저 파견하였고, 다시 호유격 일행을 파견하였으나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는 이유로 진양기만 남기고 전원 철수를 명한다.”³²⁾

훈련도감은 철군 중 병으로 낙오되었다가 호대수 교사일행과 함께 온 유정 군영 출신의 운남 묘병(苗兵) 화응춘(花應春), 이을(李乙) 2명을 몰래 두어 훈련하였다. “정밀하고 상세한 자로 그 기술을 다 배우도록 하라... 중국인은 알지 못하게 하라.”³³⁾ 묘병은 표창, 환도, 쇠뇌를 주요 무기로 사용한다.³⁴⁾ 이들은 독약과 화기 제조의 기술이 있었다. 훈련도감이 명군에게서 다양한 군사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팔거(八莧) 주둔 유정의 군영에서 2년 훈련하였는데 세 道 군병이 비용만 들뿐 실효가 없다.³⁵⁾ 고 평가하였다.

2단계 시기는 명군의 전면 철수와 동시에 남겨진 교사와 1, 2차 파견 교사에 의한 무예훈련이 주를 이룬다.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양귀, 진백기 등에게 쌍검, 언월도, 창선을 평양의 명군에게서 진정창법을, 운남 묘병의 무예를 흡수하는 등

31) 선조수정실록 28년 7월 1일 임신 6번째 기사.

32) 선조실록 29년 2월 17일 갑인 2번째 기사.

33) 선조실록 29년 2월 14일 신해 1번째 기사.

34) 『百苗圖 九股苗』.

35) 선조실록 29년 5월 1일 정묘 4번째 기사.

다양한 노력을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예교사의 자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군기가 문란하고 불성실하여 전군에 무예를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훈련의 성과는 미비하고 폐해만 크게 발생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3. 3단계: 정유재란 발발에서 종전까지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발발하고 3월에 명군이 다시 출병하게 되면서 조선과 명 조정에서는 조선군 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명의 방어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학사 장위(張位)와 심일관(沈一貫)은 조선에 대한 경리, 특히 요충지에 군사거점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과 평양 두 곳에 군사기구를 둔 도시를 만들고, 순무(巡撫)와 사도(司道)를 파견하여 전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와 함께 조선이 요청하는 남병의 주둔보다는 조선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³⁶⁾

선조는 대신들과의 논의에서 장기적 방안으로 명군의 둔전까지도 허락할 정도로 명 조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그는 ‘우리나라와 (중국어) 한 집안’이고 전략적으로도 이롭다고 주장하였다.³⁷⁾

이어 명 시랑(侍郎) 손광은 조선에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전달한다.

“자꾸 우리더러 군사를 노숙시켜 오랫동안 지키게 하여 그칠 날이 없으니, 아마도 나중에는 중국도 곤궁하게 되어 피폐해질 것이다. 두 나라 모두 곤궁하게 되는 길이다. 만전을 기하는 큰 계획을 세우려면 중국의 통치법을 본떠서 조선을 다스리는 것이 제일이다.”³⁸⁾

방비체제로 군사훈련 등이 포함되었는데, 순무와 사도 아래 수십 명의 장수를 조선인과 중국인을 섞어서 구성하고, 군대는 중국의 법으로 조직하고 중국의 전

36) 명신종실록 25년 2월 14일 1번째 기사.

37) 선조실록 30년 3월 15일 을사 4번째 기사.

38) 선조실록 30년 4월 13일 계유 7번째 기사.

술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얼마 후 명 조정은 훈련도감의 훈련을 검열하고 평가한다. 그 동안의 훈련에 성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훈련도감의 군은 비록 매우 정밀하다고는 못하나, 몇 년 동안 배우고 익혀, 제법 앓고 서고 나가고 물러남(坐作進退)의 법을 알아, 문란하거나 질서가 없지 않다.” 39)

이 시기 무예훈련은 훈련도감이 부총병 오유충과 유격 허국위 군영의 협조 하에 추진되었다. 훈련도감에서 무예훈련과 연구를 시작한지 4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문제점과 의문점을 제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실록의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훈련도감이 무예훈련에서 어떤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훈련도감은 오유충 남병부대가 충주로 가기 전 무예가 뛰어난 6인을 파견 받아 5-6일 동안 밤낮으로 연속하여 여러 무예를 배운다. 하지만 종전에 배웠던 내용과 다르다고 여겨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

“전에 훈련도감에서 연습한 법은 문유와 진양기에게서 나왔으니 이는 곧 낙상지 군중의 법인데 이제 또 다른 기예를 다시 배운다면 어느 것이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은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결국 한단의 걸음(흉내만 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함)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40)

또한 절강병의 진법과 무예, 사천병인 유정 군영의 진법과 무예, 일본 검술 등을 두루 배웠으나 섞어서 익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우려하는 대목이 보인다.

유정의 사천병도 절강병과 함께 남병이라고 불리었으나, 사실 체계는 완전 다른 부대이다. 절강병은 척계광이 혁신하여 훈련시킨 부대이고 유정의 사천병은 묘족 등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부대로 출신과 훈련체계가 완전 달랐다.

특히 척계광의 절강병 무예는 척계광이 여러 민간무예를 융합하여 전장에서

39) 선조실록 30년 7월 5일 갑오 3번째 기사.

40) 선조실록 30년 7월 5일 갑오 3번째 기사.

유효한 실전무예로 재구성한 무예훈련법이다. 그가 정립한 전장 무예의 핵심은 원앙진 진법에 따라 무기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장단겸용(長短兼用)의 기법, 날개 기술로 구성된 훈련법, 겨루기를 통한 담력 훈련 등이다. 척계광 수하인 낙상지와 오유충 진영의 무예가 외형적인 동작에서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인 훈련법에서는 맥락을 같이 했을 것이다.

훈련도감은 전에 낙상지 군영에서 배운 창법과 오유충 군영의 창법이 다르고, 오유충 군영의 창법은 『기효신서』의 창법과 또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기효신서』에서는 창두가 부드럽게 흔들려야(軟顫) 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유충 군영의 교사는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창법 훈련의 기본 원리를 생각하면 당시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창의 기본기술은 창두를 좌우로 원을 그리며 구사하는 것으로, 숙달되어 힘이 잘 전달되면 창두가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며 흔들린다. 창두가 흔들리지 않고 뻗뻗하다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기술이 부족하여 힘이 창두에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거나, 또는 창을 만든 자루의 재질이 뻗뻗하여 탄성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오유충 군영의 교사수준이 저열하거나 무기의 질이 저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훈련도감에서 제기한 의문점은 창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오해일 것으로 짐작해 본다. 창법은 창을 좌우로 원을 그려 돌리고(방어) 찌르는(공격) ‘란나찰(攔拿扎)’의 기법을 기초로 한다. 처음 익힐 때는 원을 크게 그려 동작이 크고 숙달될수록 원을 작게 하여 정교하게 할 수 있다. 원이 작아지면 마치 창두가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유충 군영의 교사가 같은 기술이지만 숙련도에 따른 다른 수준의 기술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무예를 배우고 기억하여 보급하는데 급급했지만, 4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배운 무예를 정리하고 나름의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겪은 혼동이라고 보여 진다.

4. 4단계: 허국위 군영 훈련

유격 허국위는 1598년 3월에 복건성 보병부대 1180명을 이끌고 조선에 참전했다가 1599년 4월에 중국으로 떠났다. 1598년 5월 27일 서울 한강별령에서 명나라 경리 양호(楊鎬)와 제독이 허국위 군병을 열병하였다. 이때 양호(楊鎬)가 허국위의 장창이 매우 무거운 걸 보고 어떻게 운용하는지 묻자,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묘기를 부리는데, 장창 낭선이 각각 정묘하여 매우 민첩하였다.⁴¹⁾ 또한 스스로 여러 무예의 요묘함을 터득하였고 『기효신서』의 법에 통달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복건성 진강(晉江)현 출신으로 만력11년(1583년)에 무진사에 합격했다.⁴²⁾ 1586년에는 남경소교장좌영(南京小教場坐營)이 되고 1593년에는 계진(薊鎮)남병유격이 된다.⁴³⁾ 남경소교장좌영은 위소군 관병을 훈련시키는 직무이고 계진 남병유격은 장성을 방비하던 절강병을 통솔하는 직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력을 통해, 그가 척계광 계열의 절강병 출신은 아니지만 기효신서의 무예를 포함한 여러 무예에 통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7월에는 훈련도감에서 무예가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교사대를 결성하고 허국위 진영에서 무예를 배운 뒤 각 군영으로 전파하도록 하였다.

“훈련도감에서 가장 정밀하게 익힌 자 12명을 뽑아 ‘교사대’라 부르고, 주무 관리로 한교가 통솔하여 허유격 진중에서 질정을 받게 하소서. 무예를 많이 배워 기예가 성취된 뒤, 이들을 교사로 삼아 중앙과 지방의 군인을 가르친다면, 그 법이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되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하나가 열을 가르치고 열이 백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⁴⁴⁾

41) 선조실록 31년 5월 28일 임자 2번째 기사.

42) 『泉州府志』 권12, 「武衛志中 會武舉」. 徐丹(2021). 萬曆朝鮮戰爭中的福兵與中朝交流, 116.

43) 徐丹(2021). 萬曆朝鮮戰爭中的福兵與中朝交流, 117.

44) 선조실록 31년 7월 25일 무신 2번째 기사.

이후 허국위 부대는 남하하여 9월 5일에 남부 해역에서 왜군과 접전을 벌였고, 11월 일본군 철수 이후 다음 해 1월 5일 서울로 돌아와 머물다가 같은 해 4월 조선을 떠났다.

허국위는 대략 조선에 1년간 체류하였는데 그 중 서울에서 머물렀던 7월에 훈련도감 교사대를 집중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사실상 조선군이 명군에게 무예를 배우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낭관 한교가 그 동안 훈련도감에서 익힌 무예를 총망라하여 『무예제보』를 완성하기 직전으로, 이 책의 편찬에 많은 영향을 미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훈련도감에서 구사한 곤봉, 등패, 낭선, 장창, 당파, 쌍수도 등 6가지 기법은 허국위의 자문에 의해 만들어졌다.⁴⁵⁾ 한교가 편찬한 『무예제보』의 특징에 관해선 다음 장에서 다시 논하겠다.

허국위의 복건병도 남병으로 분류하나 척계광 계열의 절강병과는 다르다. 당시 왜구가 주로 출몰하였던 절강, 복건, 광둥 일대에서 복건과 광둥은 소위 유가군(俞家軍)이라 불리었던 유대유(俞大猷) 계열의 부대가 활동하였고, 절강은 소위 척가군(戚家軍)이라 불리었던 척계광 계열의 부대가 활동하였다. 유대유는 소림사 승병에게 곤법을 전수하고 척계광에게도 곤법을 전수하여 『기효신서』 단병 무예의 체계를 잡는데 도움을 줄 정도로 무예에 조예가 깊었다. 유대유와 허국위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은 복건성 진강 동향으로, 허국위가 이끈 군대는 유대유 계통일 가능성이 있다. 그가 본디 유대유의 부하나 문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⁴⁶⁾ 유대유가 고향에 낙향하여 사망한 시점이 1579년이고 허국위가 무진사에 합격한 것이 1583년의 일이니 최소한 유대유가 허국위의 무예에 영향을 미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무예제보의 첫머리에 곤봉이 수록된 점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난 1600년 선조는 훈련도감이 아이들에게 곤봉과 권법을 가르쳐 놀이로 만들 것을 명한다.

45) 『國朝寶鑑』 권73, <정조조>14년 4월조. 박현규(2018). 임진왜란 중국사료.

46) 馬明達(2000). 說劍叢稿. 蘭州大學出版社, 239.

“중국 조종의 말을 들었는데 목봉의 치는 기술이 긴 창이나 칼을 쓰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그 기술을 익히지 않을 수 없다. 또 권법은 용맹을 익히는 무예인데,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이를 배우게 한다면 마을의 아이들이 서로 본받아 연습하여 놀이로 삼을 터이니 뒷날 도움이 될 것이다.”⁴⁷⁾

임진왜란을 겪으며 국가의 안위에 무예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민간의 아이에게까지 무예가 전파될 수 있도록 조정에서 앞장서 노력한 것이다.

명 조정은 조선에서 파병군이 완전 철수한 후 조선군을 속오법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좋다는 형개와 만세덕의 사후처리 보고를 받고⁴⁸⁾ 이듬해 11월에는 조선 스스로 훈련을 통해 강해질 것을 요구하고 다시는 군사를 요청하여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⁴⁹⁾

명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더 이상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은 자체적으로 무예훈련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훈련도감에서 무예훈련교범을 출간하고 무예교사를 배출하였으며 무과 시취과목에 단병무예를 반영하였다. 민간까지 무예를 보급하는 시책을 통하여 무예의 진흥을 도모하였다.

Ⅲ. 한교의 『무예제보』 편찬과 ‘투로무예’의 도입

1593년 6월 낙상지 군영에서 살수무예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이래로 1-2년의 연습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도리어 배운 내용이 과연 실전적인 것인지 의심하는 대목이 나온다.

“기효신서에서는 살수의 기술에 花法과 正法이 있다고 했는데 전후에 걸쳐

47) 선조실록 33년 4월 14일 정해 2번째 기사.

48) 명신종실록 29년 2월 辛卯.

49) 명신종실록 30년 11월 乙亥.

중국 사람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 정법이고 무엇이 화법인지 알 수 없습니다.”⁵⁰⁾

명군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무예를 배우긴 했으나 그들이 정법만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신뢰하지 못한 것이다. 분명 배우면서도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무술에서 정법과 화법의 구분은 매우 고질적인 것이다. 화려한 동작을 추구하는 화법은 민간무예에서 보편적인 것이었으나 생사가 달린 군사무예훈련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척계광 군영에서조차 군법으로 화법을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이는 민간무예를 도입하여 만든 남병무예가 군사무예로 완전하게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척계광이 직접 통솔하던 시기의 군영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조선에 파병된 남병의 군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중국무술의 실전성 논란은 명대의 군영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유독 중국무술의 실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중국무술이 화려한 외관을 중시하는 기법이나 투로무술이라는 특유한 운동형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투로무술은 중국의 농경문명과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형성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⁵¹⁾ 투로무술이 민간무술로서 여러 가치를 내포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군사무술로서의 효율성에는 의문이 든다. 명대의 군사가 하양신(何良臣)은 그의 저서 『陳紀』 권2 「技用」에서 “비록 보기에는 좋지만 기예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는 군중에서 절대 금기해야 하는 것으로 ‘투자무예(套子武藝)’⁵²⁾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군영에서 투로무예나 미관을 추구하는 화법의 폐단이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척계광도 기효신서에서 화법이 버려도 끝이 없다고 한탄했다. 조선에 파병된 명 진영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당시 훈련도감에서 정법과 화법을 분간하는 문제가 야기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50) 선조실록 30년 7월 5일 갑오 3번째 기사.

51) 梅杭强(2002). 武術套路形成的根源研究. 上海體育大學. 博士學位論文.

52) 중국학계에서는 ‘투자’를 ‘투로’의 속칭(中國武術大辭典, 1990)으로 보나 국내에서는 ‘투자’를 꾸며진 무예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절강 병사의 각종 무예는 원래 손놀림과 발놀림을 익숙하게 하고 담력의 단련을 힘쓸 뿐이어서 특별한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譜를 아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각보를 정밀하게 가르쳐서 익숙하게 단련시키며 법식에 어긋나는 폐단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⁵³⁾

위의 내용으로 훈련도감의 무예를 보는 안목을 살펴볼 수 있다. 절강병의 무예를 평가하면서 특별한 법이 없으니 보(譜)를 만들어 가르쳐야 법식에 어긋나는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후 대략 2년 뒤에 훈련도감 낭관 한교가 편찬한 『무예제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기효신서』 가운데 수록된 것은 여러 勢의 연이어 연습하는 譜에 대해서는 가히 근거하여 고찰할 것이 없으므로 부득이 살수를 뽑아 거느리고 두루 천조의 장사들에게 물은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만 바람과 벼락처럼 회전하며 예리하게 나아가고 신속하게 물러나는 사이에 어떤 세와 어떤 법도 살펴서 포착하기 어려웠습니다.”⁵⁴⁾

여기서 한교가 날개 기술인 세(勢) 훈련법과 여러 세의 연결동작인 투로(套路) 형식의 무예훈련법을 인지하였고, 날개 훈련보다는 투로훈련법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을 보로 만들고자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한교가 주목한 것은 바로 ‘투로무예’였던 것이고, 이를 보(譜)라고 인식한 것이다. 명군의 여러 군영에서 익힌 다양한 무예를 동일한 동작과 순서로 정리하는 방식이 오래도록 정확하게 보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교의 이러한 생각은 허국위와의 문답인 「기예질의(技藝質疑)」에서도 들어난다.

한교가 허국위에게 무예의 오묘함이 무엇인지 묻자, 허국위는 무예의 요결은 신법, 요법, 수법, 족법이고 여기에 목숨이 달려있다고 처음과 말미에 두 번이나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교가 기효신서에 수록된 장창 24세의 전체 동작을 알기를 원하자, 여러 동작을 익히는 것보다 기본 한 세를 익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53) 선조실록 28년 3월 23일 병신 3번째 기사.

54) 『무예제보』 「무예교전법」

강조하였다. 즉 외형적인 동작의 가지 수 보다는 기예의 원리를 몸으로 터득하여 응용할 것을 알려준 것이다. 하지만 한교는 그래도 24세 창법의 동작을 다 알아야 완전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24세 동작을 연결하여 연습하는 것이 불완전한 것은 (支離) 아닌지 묻는다. 여기에 허국위는 긍정적으로 답변한다.⁵⁵⁾ 조선 군영의 살 수 무예 훈련 방법이 결정되는 장면이다.

“지금부터 무예를 시험하는 것은 오로지 이 보에 따르면 비록 혹 맞지는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 법에서 멀지는 않을 것이니 화법과 정법은 이로 인해서 구분할 수 있어 거의 허투에 속임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⁵⁶⁾

한교는 명군의 철수를 염두에 두고 배운 동작들을 경전처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기예질의」를 보면 성리학을 공부한 문사로서 주역의 64괘처럼 무술의 동작 하나하나에 매우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효신서의 24세 창법도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 척계광도 기효신서에서 여섯 가지 기본기인 육창이면 충분하다고 토로하였다. 군영에서 투로무예가 만연하는 문제는 명나라,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군대에서도 특공무술의 연무형이나 태권도의 품새를 훈련한 경험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무술은 당연히 그렇게 투로나 품새로 훈련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투로, 품새, 형과 같은 연무식 훈련법이 무예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 단련이나 시연의 목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수련법이다. 하지만 군사무예의 훈련법으로 부적절함이 제기되었고 지금은 현대적인 격기술의 도입과 검증을 거쳐 더욱 실전적인 훈련체계로 혁신되고 있다. 하지만 한교와 같은 조선시대의 문인이 투로 무예가 군사훈련법으로 매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간파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기예는 반드시 신법, 요법, 수법, 족법, 등인데 다만 그 이름만 아는 것은 사용하는데 무익하며 목숨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허국위의 마지막 당부는 매우 의미

55) 『무예제보』 「기예질의」

56) 위의 책

심장하다.

지금까지도 중국무술계에서 투로운동의 실전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현대 우수경기 종목에서 겨루기인 산타와 시연 종목인 투로무술이 완전히 분리된 점도 이러한 사실을 설명한다. 겨루기 산타 선수가 투로를 연습하거나 투로 선수가 산타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투로운동이 격기술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손놀림과 발놀림을 익숙하게 하고 담력훈련에 힘쓰고 특별한 법이 없는” 절강병의 무예가 군영에서는 바로 정법인 것이다. 척계광은 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인 화법이 만연한 민간무예를 실전에 유효하게 날개 기술인 세 위주의 훈련법으로 혁신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명군의 무예는 여전히 화법과 투로 형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무예가 존재하였고 조선은 이를 분별하여 도입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교는 날개 기술을 연결하여 만든 투로 형식을 주요 훈련법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후대로 이어져 『무예 제보번역속집』과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조선군 무예훈련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결 론

임진왜란기 명 조정은 강화협상 초기부터 파병에 따른 군비부담을 이유로 조선의 자위력으로 일본군을 방어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조선 조정도 군사력 재건이 급박한 상황에서 적극 호응한다. 이에 따라 일본군과의 전투에 최적화된 남병 무예를 중심으로 조선군을 훈련시키는 계획이 추진된다.

1593년 5월 남병 참장 낙상지가 처음으로 류성룡에게 무예훈련을 제안하여 도성에서 시작되었으며, 장창, 낭선, 검 등을 가르쳤다. 후에 경략 송응창이 선조에게 자문하여 무예훈련이 지방군까지 확산한다. 초기에는 조선군이 대구, 충주,

남원 등지의 낙상지, 오유충, 유정 등 명군 진영에서 무예를 훈련하였다. 후에는 훈련도감에서 직접 무예교사를 양성하고 지방군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무예를 전파하였다. 명군의 철군이 임박하자 류성룡은 낙상지 진영에 70명을 파견하여 무예를 배우게 하는 등 남병의 무예를 도입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이 시기에 민간의 어린아이에게까지 무예가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양상이었다.

2단계는 강화협상기로 명군의 전면 철수가 추진된다. 이 시기는 잔류한 낙상지 진영의 교사 문유, 호여화 등과 선조의 요청으로 명 조정이 보낸 1차 파견 교사 12명, 2차 파견 교사 100여 명에 의해 무예훈련이 추진된다.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양귀, 진백기 등에게 쌍검, 언월도, 장창, 낭선을 배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고 군기가 문란하여 1년여 만에 철수시킨다. 훈련의 성과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컸다. 절강병 무예 외에도 평양의 명군에게서 진정창법을, 운남 묘병에게서 화기를 배우는 등 다양한 무예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정유재란이 발발한 3, 4단계 시기의 무예훈련은 훈련도감이 부총병 오유충과 유격 허국위 군영의 협조로 추진되었다. 무예훈련을 시작한지 4년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 시기이다. 훈련도감은 오유충 남병부대가 충주로 가기 전 무예가 뛰어난 6인을 파견받아 5-6일 동안 밤낮으로 연속하여 여러 가지 무예를 배웠다. 하지만 낙상지 군영에서 훈련하였던 것과 다르고 기효신서의 창법과도 다르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남병 군영의 무예훈련이 통일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무예의 숙련도에 따른 기법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무예를 배우고 서둘러 전파하는데 급급했지만, 어느 정도 숙련과정을 거치면서 체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한 시기였다.

4단계는 훈련도감 12명이 교사대를 결성하고 허국위 진영에서 다양한 무예를 훈련한 마지막 시기이다. 또한 낭관 한교가 문답을 통해 허국위의 자문을 받고 그 동안의 성과를 총망라하여 훈련교범 『무예제보』를 편찬했다. 날개 기술인 勢를 다시 연결하여 만든 투로 운동형식을 주요 훈련법으로 도입하였고, 이러한

훈련방식은 후대로 이어져 『무예제보번역속집』과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武藝諸譜

이덕무, 박제가 撰. **무예도보통지** 권4, 권법 5. 동문선 영인본(1998).

정해은(2004).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단병기와 무예제보의 간행. **軍史**, 제 51 호.

노동호(2022). 척계광 남병무예에 관한 고찰. **무예연구** 16(4).1-21.

나영일, 노영구(2003). **조선중기 무에서 연구와 무예제보 무예제보번역속집** 역주.

2003년도 서울대학교 한국학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류성룡(1996). **서애집**. 한국문집총간. 52.

역주병학지남.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유성룡지음, 장준호번역(2022). **해설정비록**. 펴낸곳: 북이십일 아르테.

김영진(2021). **임진왜란 2년 전쟁 12년 논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박현규(2018). **임진왜란 중국사료연구**. 순천향인문진흥총서2, 2018.

明神宗實錄

戚繼光(明). **紀效新書** 18卷本. 馬明達 點校(1988), 人民體育出版社.

戚繼光(明). **練兵實紀**. 邱心田 校釋(2001), 中華書局.

戚繼光(明). **紀效新書** 14卷本. 范中義 校釋(2001), 中華書局.

蔡藝(2020). 萬曆援朝戰爭與浙兵武藝在朝鮮半島的傳播. **成都體育學院學報**, 46(4).

朱永濤(2017). **戚家軍將領群體研究**. 黑龍江大學 碩士學位論文.

楊海英, 任幸芳(2013). 朝鮮王朝軍隊的中國訓練師. **中國史研究**. 2013(3).

馬明達(2000). **說劍叢稿**. 蘭州大學出版社, 239.

梅杭強(2002). **武術套路形成的根源研究**, 上海體育大學. 博士學位論文, 79.

徐丹(2021). 萬曆朝鮮戰爭中的福兵與中朝交流. **當代韓國**. 2021(2), 116.

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Southern Troops(南兵) Martial Arts during the Imjin War(壬辰倭亂)

Noh, Tong-Ho(Nambu Univ.)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introduced martial arts by analyzing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southern troops martial arts during the Imjin War. The introduction of southern troops martial arts during the Imjin War began in the capital city when Nak Sang-ji(駱尙志) proposed martial arts training to Ryu Seong-ryong(柳成龍) for the first time. Later, it spread to local forces, and in the early days, the Joseon army trained martial arts in the southern troops camp. Later, martial arts were spread by directly training martial arts teachers in the Hunlyundogam(訓練都監) and dispatching them to local forces. In addition, martial arts were widely spread to children in the private sector during this period. In the second stage, martial arts training was promoted by teachers from the Nak Sang-ji camp remaining in the peace negotiation period, 12 first dispatched teachers, and 100 second dispatched teachers from china. However, it was withdrawn after about a year due to the lack of quality of martial arts teachers and the disorder of military discipline. The damage was more serious than the outcome of the training. It was a time when we tried to introduce various martial arts. During the Jeongyu War(丁酉再亂) period, the Hunlyundogam promoted martial arts training in cooperation with Oh Yoo-chung(吳惟忠) and Heo Kuk-wi(許國威) camp. Four years after starting martial arts training, it was a time when questions were raised about the achievements and efforts were made to resolve them. The fourth stage is the last stage in which 12 members of the Hunlyundogam formed a teacher's squad and trained various martial arts in the Heo Guk-wi camp. In addition, Han Kyo(韓嶠) received advice from Heo Kuk-wi through question-and-answer and compiled Mu yejebo(武藝諸譜) covering all of the achievements so far. Tulo(套路), created by reconnecting every single skill(勢) was introduced as the main training method.

Key words: Imjin War, Southern troops , Hunlyundogam, Martial Arts

논문투고일 : 2023.09.26
심 사 일 : 2023.10.17
심사완료일 : 2023.11.06